

김호신의 피렌체 여행기 영원한 봄을 찾아서

5. 산토스피리토 광장(Piazza Santo Spirito)으로

R은 여전히 입술을 짝 다물고 앞만 노려 보면서 걸어 가고 있었다. 말을 걸면 그대로 빙글과 함께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발사 직전의 미사일 같은 모습이었다. 방긋 편 눈이 성난다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 왜 저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지? 나도 할 말이 많지만 아무 말 않고 참고 있는데 시종일관 뿔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슬며시 화가 났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기로 했다. 아이는 엄마가 야단치고 잔소리 할까 봐 필사적으로 방패를 치고 있는 것이다.

겨우 찾은 콜 센터는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낸 듯한 말 그대로 구멍가게였다. 중동 이민자로 보이는 젊은이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내부에는 공중전화 부스 같은 것이 세 개 설치되어 있었고 팩스기기, 복사기기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 보였다. 우리가 들어 서자 주인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던 서너 명의 중동계 남성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 보았다. 우리는 영어로 미국에 국제전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주인은 영어를 못하지만 눈치로 알아 들은 것 같았다. 이탈리아어로 부스 중 하나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라고 한다. 우리 역시 눈치로 알아 듣고 시키는 대로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옛날에 없어진 다이얼식 전화가 한 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전화를 앞에 놓고 R이 당황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엄마, 카드 번호가 있어야 하잖아. 카드 회사 전화도 몰라!" 너무 놀라서 그때까지 그 생각도 미처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내 핸드폰을 척 내 놓으면서 자신 있게 말했다. "엄마가 혹시 이런 일이 일어 날까 봐 모두 사진을 찍어 놓았지!" 정말 내 핸드폰에는 R의 패스포트, 미국 운전면허증, 크레디트카드, 은행카드 모두의 앞, 뒷면을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R이 처음 런던으로 떠날 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찍어 놓은 것이었다. 만일의 경우가 사실이 되고 보니 그것이 결정적인 기록이었다. 혹시라도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큰일이 나겠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은 손톱만큼도 나지 않았다.

R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미국 크레디트회사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도난 신고를 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 크레디트카드와 은행카드는 즉시 사용 중지가 걸렸고, 새 카드는 3일 안에 런던에 있는 해리의 주소로 우송하기로 했다. 우리는 6일 후에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았다. 무사히 일을 해결한 우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로 들여다 보고 있는 중동 젊은이들 사이에서 주인이 달라는 대로 돈을 지불하고 (시체가 얼마인지도 모를 뿐더러 흥정할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으므로) 구멍가게를 나왔다.

밖은 이미 밤이 내려 캄캄했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미로 같은 피렌체의 골목 어딘가에 서 있었다. "배고프지? 어디 가서 빨리 저녁을 먹자." 밥을 먹자는 엄마의 말에 갑자기 R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미안해!" 아이는 그때까지의 긴장이 다 풀리고 비로소 자기의 태도가 어처구니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흐느껴 울었다. "괜찮아. 다 해결 됐으니까 이제 됐다.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이제부터 엄마 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말아야." 나는 우는 아이를 안아 주면서 토닥 토닥 달랬다. 그런데 나도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너무나 기대에 부풀어 날아 온 피렌체에서 도착하자마자 당한 사건이 너무 황당했고, 집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이국의 도시 골목 한 귀퉁이에서 하나밖에 없는 피붙이와 그렇게 끌어 안고 서 있는 것이 왠지 너무나 서러워졌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피렌체의 밤하늘 아래 골목에 서서 같이 울었다.

그때 어디선가 검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개는 어슬렁거리면서 다가 와 우리를 빤히 보다가 신발에 코를 대고 쿵쿵 냄새를 맡았다. 우리는 울다가 개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갑자기 깔깔 웃으니까 이탈리아 개는 놀라서 도망쳐 버렸다. 우리는 계속 소리내 웃으면서 골목을 빠져 나왔다. 골목이 끝나는 곳에 조그만 광장이 나오면서 우아한 로마네스크식 성당 건물이 나타났다. 구글맵을 찾아 보니 '성령의 광 (Piazza Santo Spirito)' 이었다. 산토스피리토 성당의 흰 벽을 밝게 비추며 광장에는 불이 환했고 성당 맞은 편으로 야외에 테이블을 놓은 레스토랑들이 즐 지어 있었다. 우리는 프라포리아 보르고 안티고 (Trattoria Borgo Antigo)라는 레스토랑으로 들어 갔다.

더독스 피부관리~!!
작은 디테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올리브스킨케어

Olive Skin Care
PREMIUM

경락 리프팅 마사지

수분 / 리프팅 / 탄력 관리

여드름 브라이팅 아쿠아필

5회 10회

\$300 \$550

714.735.8844 7041 Western Ave. #C,
Buena Park, CA 90621

Since 1986 ASIANA AIRLINES KOREAN AIR

파이오니아 여행사

모든 항공권, 모든 관광일정을 친절하게
안내 해 드립니다. 믿고 문의 하세요!

종교개혁지 탐방 **성지순례**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9박10일 이스라엘, 요르단 9박10일

인당 **\$1999** + 항공료 별도 인당 **\$1799** + 항공료 별도

출발 9월 10일 (7월 마감) 출발 10월 8일 (8월 마감)

* 30명 기준 가격입니다.

LA 일일관광 수시출발 (2인이상) \$99

매주토요일 LA, 샌디에고, 산타바바라 일일관광 9시 정시출발

★서울왕복★가장 싼 티켓

모든 항공사 공인 대리점 www.lapioneertour.com

Tel: (562)403-3360
E-mail: pioneertv@yahoo.com
17510 Pioneer Bl. Artesia, CA 90701 (Pioneer / 맥도널드 건너편)

밸런스 개선

전문의와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아큐베델 만의 공진단, 갱년기환, 다이어트환,
변비약, 발모제와 보습 힐링크림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ACU Bethel

아큐베델 한의원

한방치료



- 통증(목, 어깨, 허리, 좌골신경)
- 당뇨, 고혈압, 중풍
-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 난임치료, 갱년기 증후군

한방다이어트



- 저주파 체지방 전기 분해침
- 고주파 셀룰라이트 제거
- 디톡스
- 다이어트 한약 및 변비약

한방미용



- V라인, 주름 제거
- 리프팅 및 얼굴 톤 개선
- 여드름, 아토피 치료
- 탈모방지

한약 / 보약



- 공진단/ 갱년기환
- 한방 탈모예방제 / 발모제
- 아토피 보습크림
- 체질별 한약 및 보약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 D
중국 북경 중의약대학 학사
Samra 대학 석사
American Liberty 대학 박사

진료시간

월~금 : 9:30am-6pm
토 : 9am-1pm
일 : Closed

* 각종 보험 환영 / 교통사고

☎ 213.598.3047
1210 S. Euclid St. # A, La Habra, CA 90631

